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종단간 불화'**

한국불교계에는 종단간에 소속된 25개 종단 외에도 종단연합회의 53개 종단과 군소종단 즉, '나 홀로 종단'들을 합치면 1백 여개에 달하는 종단이 있다. 각 종단들은 각자의 종지와 행정체계를 갖고 불교 신앙적 이념을 바탕으로 항중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와 실리적 이득에 따라 분풍을 거듭하면서 양산된 종단도 많아 종단간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불제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종단이 난립하다보니 종단간 불협화음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조계종을 비롯 태고종, 진각종, 현대종 등 4대 종단이 부싱하는 가운데 여타의 종단이 위축되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25개 종단이 모여 종단간의 유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불교계의 현안을 공동으로 협의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종단협의회 조차도 97년도에 종단간 불화' 양분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그동안 관계를 깨고 조계종이 단독 주최로 불국경사를 개최해 불자는 물론 국민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이런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의 실리 행기에 급급해 '우리 종단'만을 생각하는 모든 종단의 공동 책임이다. 또 종단 위상을 확고히 다진 종단이 그렇지 못한 종단보다 적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물론 각 종단마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지만 세속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이(利)를 위해 서로 다투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종단을 구성하는 주요 주체인 승가가 자신의 이(利)를 떠나 이타적인 집단이라는 의미를 보다 반듯하게 세워 종단마다의 공동 책임을 세워야 한다. 그런 다음 각 종단간의 화합과 불교발전이라는 큰 문제를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nia.com)

## 금강산 신계사 복원 '눈앞'

현대·불교계 추진...북한도 '연내착공' 긍정반응

금강산 지역의 폐사지 신계사와 유점사 장안사가 복원될 계획이다.

금강산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의 계열사인 (주)아산의 김고중부사장은 실무협의단은 2월 22일 북한측 조선아세아태평양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신계사 등의 복원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고중 부사장은 11일 "북측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며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불교계와 폭넓은 상의를 통해 복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부사장은 또 "이미 북한측에 신계사 등 사찰 복원승인을 공식 요청했으며 북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현대는 북측과의 협의를 끝나는 대로 국내 불교계와 협조해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현대측과 불교계 조국경회총일불교협회(회장 법타)는 신계사 등의 복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 회장 법타는 "그간 현대측과의 접촉을 통해 금강산 지역 사찰 복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다"며 "올해 내로 신계사에 대한 복원 사업이 착수될 것"이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도 "아직 현대측의 협의나 제안은 없었으나 복원불사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 말했다.

현대측은 불교계와 협의를 거쳐 금강산 관광코스에 포함될 신계사를 우선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사는 금강산 구룡폭포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다. (본지 180호 11면 참조)

신계사 복원과 관련 광복회와 현대측은 19일 만나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통일부의 관계자도 현대가 북측과 협의하고 불교계와 사업 절차를 기획하는 등 구체적인 복원 계획을 세울 경우 사업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임연태 기자  
(ylim@buddhania.com)



전남 보성 대원사에서 10일 조선 영조대의 옥불좌상 110구가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조선중기 천불좌상 110구 발견

**보성 대원사서**

전남 보성 대원사(주지 현창)에서 조선 중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옥불좌상 110여구가 두상과 몸체가 떨어져진 채 출토됐다.

대원사는 10일 오전 11시경 공작기를 돌리던 경내 수로정 비자업을 하던 도중 각기 모양이 다른 30cm 크기 좌상 1백10여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주지 현창스님은 "조선 영조 때 나한전과 천불전, 지장전, 극락전 등을 중창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 모셔진 천불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들 불상은 일제 강점기 또는 6·25사변 당시 사찰 화재 때 스님들이 몸을 건졌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문화재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정확한 발굴경위와 제작연대 등을 조사중이다.

김중근 기자  
(gajm@buddhania.com)

## 소쩍새 마을에 연등을

조계종 사회복지 법인 승가원이 운영하는 원주 치악산 소쩍새 마을. 이곳은 누구도 볼모지 않는 부랑자와 장애인, 무의탁 노인들 3백여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소쩍새 마을은 현재 강원도 협성에 새로운 보금자리 승가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소쩍새 마을의 보금자리 건설불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불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올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분사는 승가원과 함께 소쩍새 마을에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소쩍새 마을에 자비의 등 하나를 밝혀 동체대비의 무량 복권을 일구시기 바랍니다.

△동참비: 1인1등 1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50  
△접수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음 양) 영가등도 필수 받습니다.  
△접수기간: 3월3일~5월 21일  
△입금계좌  
● 안빛은행 059-170968-13-001  
● 외환은행 142-22-01704-2  
● 국민은행 093-01-0293-459  
● 우체국 011809-0332390  
● 농협 063-01-19213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승가원 소속 스님 13분이 축원해드립니다.

## '생명나눔실천' 3월 대법회

화장유언 및 사후 장기기증 서약

△일시: 1999년 3월 21일 오전10시30분  
△장소: 철원 실안사

주최: 생명나눔실천회·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심원사

## 6월초 1천여불자 금강산순례

**종단협·조계종,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등 추진**

1천여명의 남한 불자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8백여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25만원 가량을 할양해 주기로 했다. 이 할양요금은 북한측은 북한노동부 사업 기금으로 쓰인다.

조계종 사회부는 중증발언문을 채택하는 남북불자 합동법회와 신계사 약식법회 개최 문제를 두고 빠른 시일내에 조선 불교도연맹 및 현대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 조불련, 남북불교 대표만남 제의

조계종을 비롯 민족화합불교 추진위원회, 조국경회총일불교협회, 진각종이 2월26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으로부터 29일부터 4월3일에 걸쳐 개별 회담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9일에는 불주위 상임집행위원장 명진스님과 사

## 을 연등축제 5월 16일

**우정국로-거리축제, 동대문운동장-법회**

서울시 특성문화제 확정

조계종 불국위는 을 연등축제일을 5월 16일로 정했다.

조계종 불국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우정국로를 중심으로 거리축제를 열고 오후 4시부터는 동대문운동장에서 법요식 식전행사를 오후5시 불국법요식, 오후7시부터 제등행렬을 각각 병행키로 했다.

불국위는 연등축제 포스터를 제작하고 각종 불국행사를 점검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조계종은 을 연등축제는 지난해 종단사태로 실시된 종단과 불교의 이미지를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기위해 보다 구체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4일 연등축제를 서울시특성문화제로 확정하고 조계종 불국위에 행정적 지원을 폭넓게 하기로 했다.

임연태 기자

## 종단대표 1백여명 23일 청와대 오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각 종단 대표를 초청하는 청와대 오찬이 23일 열린다. 청와대측은 문화관광부를 통해 100여명의 불교계 종단대표를 초청했다.

이와관련 종단협의회 문화공부와 참가자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입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불교종합정보센터 '부디피아'는 매일 교계뉴스 속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부디피아에 접속해서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교계 소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부디피아: www.buddhania.com

###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불교도 금강산 순례

북녘동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同體大悲心과 분담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불교도의 臂膀을 모아 남북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佛事に 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순례기간 : 불기 2543(1999)년 6월 2일(수)~5일(토) (3박 4일)
- ▶ 모집인원 : 1000명 (선착순 마감) / 신청마감 : 4월 30일(금)까지
- ▶ 동참금 : 2인1실 기준 1인 요금 790,000원 (통로쪽) 890,000원 (바닷가쪽) 990,000원 (특급)

※ 본 행사의 수익금은 북녘 동포 돕기 성금으로 사용 됩니다.

- ▶ 준비서류 :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 신청서(여행사 비치) 여권용 칼라사진 3매, 주민등록증 복사본(양면)
- ▶ 프로그램(예정)
  -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 기원 법회(큰스님 법문)
  - 문화 공연, 음악회
  - 학술 세미나
  - 신계사지 남북통일을 위한 기원 법회
- ▶ 신청문의
  -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02-732-4885)
  -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02-735-5864)
  - (주)반야 여행사(☎02-730-0020)
- ▶ 접수처 : (주)반야 여행사(☎02-730-0020)

주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업무대행 : (주)반야여행사  
협찬 : 불교신문 / 불교방송  
후원 : 현대상선주식회사